

# 안녕하세요 위클리예요

[Weekly: 2024/11/11~2024/11/17]

2024.11.18

## [로봇]

- 이번 주의 이슈: 3Q24 로봇 실적
- 국내 로봇 기업 실적 발표 완료. 전년비 매출액은 소폭 증가
- LG전자의 로봇 승부수. 베어로보틱스 지분 과반 확보

## [방산]

- 이번 주의 이슈: 2025년 수주 파이프라인
- 연말 내수 방산 수주 랠리 임박. 일단 천무 공급 계약. 그리고 L-SAM 2 개발도 입찰
- 해외는 페루 장갑차 수주하고 KF-21 공동개발 MOU 있었지만, 라트비아 장갑차는 스페인으로. 하지만 다가오는 루마니아 K-2

## [항공]

- 이번 주의 이슈: 항공기 인도/도입 동향
- 보잉 충격적인 10월 신조 인도 14대. 다행히 파업은 종료. 하지만 구조조정 등 혼란은 계속
- 엇갈린 에어부산과 티웨이 실적. 티웨이는 유럽보다 선제적 인력 투자 영향이 컸음



## Weekly Keyword

### 3Q24 로봇 실적

국내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모두 발표. 전년비 소폭 증가했으나, 아직 시장이 기대하는 폭발적인 성장은 관측되지 않음. 내년도 이후 수요 흐름 개선 기대. 국내 제조업의 미국 투자 증가 관심 필요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a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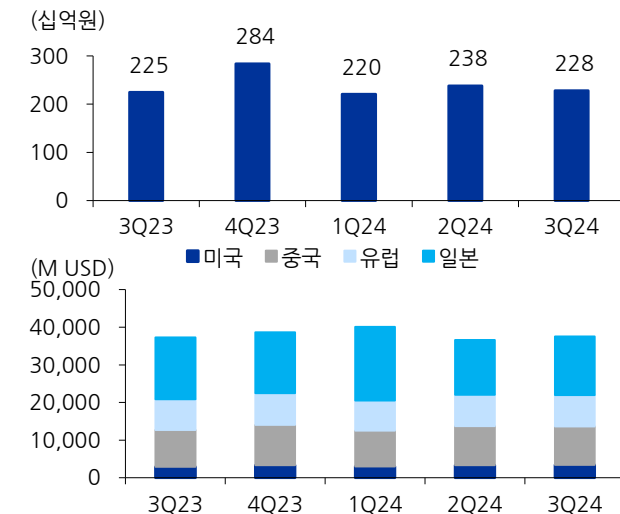


## What's new? - 로봇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63)

### [3Q24 로봇 실적]

- 국내 로봇 기업들의 3분기 실적 모두 발표됨. 매출액 합계는 2,280억 원으로 전년 2,245억원 대비 소폭 증가. 아직 크게 매출 성장을 기록하지 못하는 중이나, 이는 해외도 마찬가지. 금리 인하 흐름과 더불어 금번 미국 대선 종료에 따라 내년도 이후 기업들의 투자 증가하며 로봇 전방 업황은 개선될 전망. 국내 로봇 기업들은 경우 미국향 수출 비중이 높음. 순수 미국 기업향 수출 보다는 국내 기업들의 해외 제조 투자 동향과 높은 연관성. 국내 제조기업의 미국 투자 동향 트래킹 필요

### Key Chart: 국내외 로봇 상장사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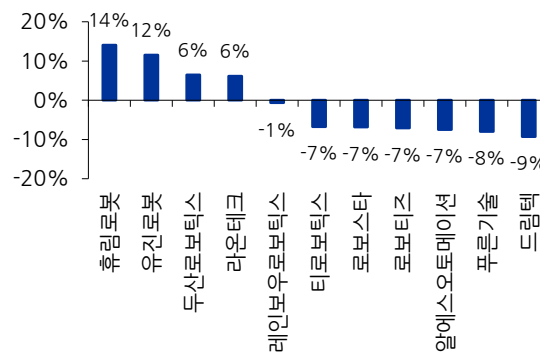


자료: 엔비디아

## 국내 로봇 기업 및 코스닥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로봇 기업 1M 시총 변화 Top 10



자료: Quantwise

## 로봇 주요 뉴스(11/11~11/17)

### [산업용 로봇]

- 뉴로메카, 28년까지 300kg 고하중 산업용 로봇 양산 목표

### [서비스 로봇]

- LG전자, 美 베어로보틱스에 추가 투자 승부수
- 로지스올-플로틱, 첫 시범운영 완료. 작업생산성 2배 향상

### [기타(정책/부품/SW)]

- KAIST 4족보행로봇 라이보2, 세계 최초 마라톤 완주
- 씨메스, 휴머노이드 등 정부 지원 연구사업 3건 선정
- 두산밥캣, 로보틱스와 포괄적주식교환 포기 공표 요구 거부
- 원익로보틱스, 촉각센서 탑재 '알레그로 핸드 V5' 출시
- 알에스오토메이션, 로크웰과 협력 강화로 미국 시장 공략
- 로보티즈, 3분기 영업손실 14억원. 매출은 3.8% 증가
- 뉴로메카, 3분기 누적 매출 172억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 산업용 로봇 팀로보틱스, 딥테크 팀스 선정

### [Global]

- LLM 기반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탈옥 공격 우려 제기
- 美 펜실베이니아대, 전파 활용해 초인적인 로봇 비전 구현
- 현대차 로봇 개 '스팟', 트럼프 사저 경호 수행 중
- 보스턴다이나믹스, 스팟에 비주얼 파운데이션 모델 적용
- 日 NEDO, 독자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필요 제기
- 세계 첫 휴머노이드 마라톤 대회 내년 베이징서 개최
- 中 임바디드인텔리전스혁신센터, 로봇 오픈소스 계획 발표
- 中 화웨이, 글로벌임바디드인텔리전스산업혁신센터 출범
- 中 휴머노이드 로봇 상장사 70% 이상, 올해 이익 증가
- 中 창안, 자동차 핵심 공정에 중국산 로봇 도입



## Weekly Keyword

### 2025년 수주 파이프라인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다수의 방산 수주가 예상됨. 일부 한국 기업들이 해외 기업에 패배하는 케이스도 있지만, 풍부한 수주 파이프라인을 바탕으로 내년에도 안정적인 신규 수주 흐름을 기대해봄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 syyang0901@eugenefn.com



## What's new? - 방산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

### [2025년 수주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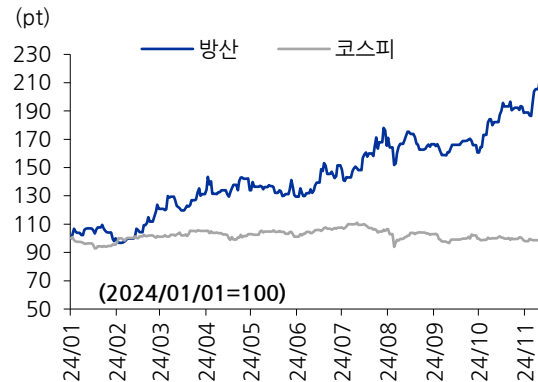
- 올해 국내 방산기업들의 주요 수주는 한화에어로의 폴란드 천무 2차 및 루마니아 K-9, UG넥스원의 사우디 및 이라크 천궁 등. 연말까지 현대로템 폴란드 K-2 및 한국항공우주 회전익/고정익, 그리고 내수 방산(L-SAM 양산, L-SAM 2 체계 개발 등) 수주 랠리 지속될 전망. 내년도 이후에는 루마니아 K-2와 장갑차, 폴란드 현지 양산, 동남아 천무, 중동 항 기동/화력 장비, 그리고 FA-50(중양아 등)과 KF-21(페루/중동/동남아) 등 다수의 수주 파이프라인 존재. 내년도에 올해 만큼 대규모 수주건은 니더라도 꾸준한 해외 수주 흐름이 예상됨

## Key Chart: 2024년 & 2025년 수주 파이프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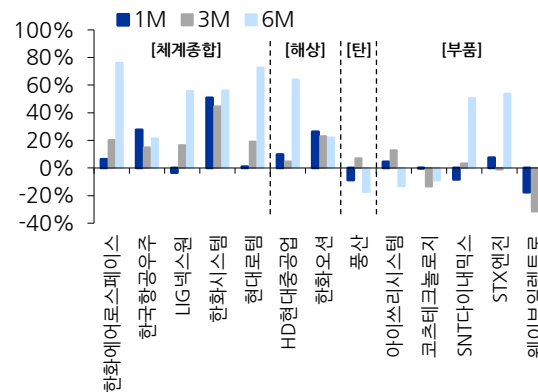
구분	既往 수주 및 예상 수주 파이프라인
2024년	폴란드 천무 2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K-9(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우디 천궁(UG넥스원&한화시스템)
	이라크 천궁(UG넥스원&한화시스템)
	폴란드 K-2(현대로템)*연말 예상
	중동 회전익(한국항공우주)*연말 예상
2025년 이후	동남아 고정익(한국항공우주)*연말 예상
	루마니아 K-2장갑차(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폴란드 현지 양산(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동남아 천무(한화에어로스페이스)
	중동 기동/화력 장비(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중양아 등 FA-50(한국항공우주)
	페루/중동/동남아 KF-21(한국항공우주)

자료: 유진투자증권

## 국내 방산 기업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방산 기업 시총 변화



자료: Bloomberg

## 방산 주요 뉴스(11/11~11/17)

### [수주/계약]

- 尹 순방 페루서 장갑차 840억원 계약, KF-21 MOU 체결
- 라트비아 차기 장갑차로 스페인 ASCOD 조달 계획
- 한국 루마니아에 K-2 신속도입 제안
- 한화오션, 美 해군 함정 두 번째 MRO 수주
- L-SAM-II 개발 본격화. UG넥스원·한화, 사업 입찰
- 한화에어로, 육군에 3,430억 규모 '천무' 공급
- 산업부, KDDX 방산업체 지정 착수
- 호주 호위함 탈락 이유는 방산보안법 때문

### [기업별 이슈]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한화에어로 회장직 등판
- KAI, 폴란드 법인 설립해 FA-50 수출 난항 돌파
- KAI, 트럼프 집권 2기 맞춰 '수출마케팅 부문' 신설
- 한화오션, '거제 중심 방산 기자재 생태계' 계획

### [기타]

- 금융당국, 폴란드 금융감독청과 MOU 체결
- 산은 법정자본금 60조 증액 개정안 발의
- LM, 한국 특수전 헬기 선정 시 한국에서 CH-53K 생산
- 방사청, 2024 국제 잠수함 기술 컨퍼런스 개최

### [글로벌]

- 美 차기 외교/안보 요직 발표, 대통령 중심 외교 전망
- EU 우크라이나에 연말까지 포탄 100만발 지원. 9개월 지연
- 中 에어쇼에서 최신 스텔스기 쟈-35A 첫 공개
- 이스라엘, 2025년 애로-3 방공시스템 독일 배치 준비
- 인도 타타, 릴라이언스 방산 투자 확대 통한 사업 확장



## Weekly Keyword

### 항공기 인도/도입 동향

10월 신조기 인도는 총 75대. 보잉이 14대 인도하며 4년만에 최저치. 파업 종료되어 향후 흐름은 개선될 전망이다. 내년에도 국내 항공사들의 항공기 도입 차질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함

유진투자증권

로봇/기계/운송 양승윤

02) 368-6139\_syyang0901@eugenef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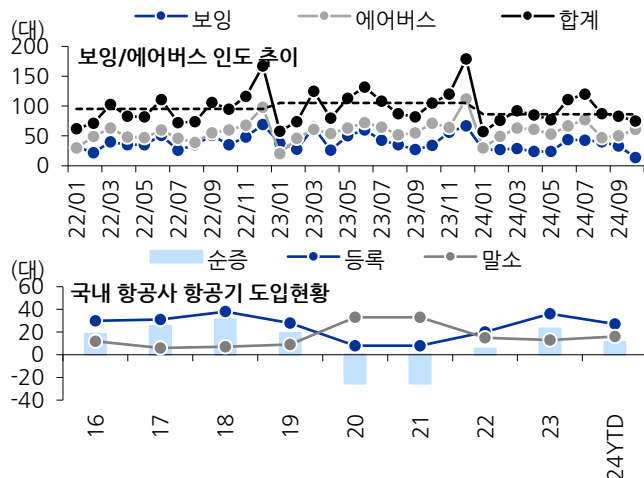


## What's new? - 항공 산업 주요 이슈 & 스터디 시리즈(11)

### [항공기 인도/도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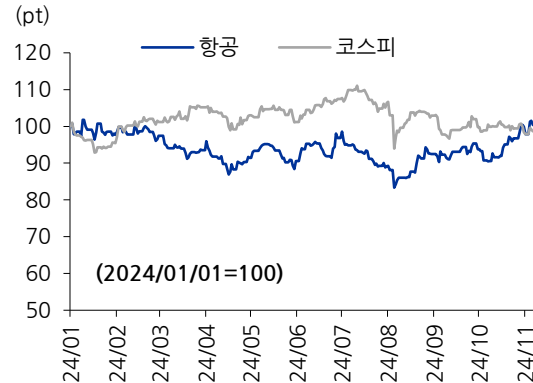
- 10월 보잉과 에어버스의 항공기 인도대수는 각각 14대와 61대를 기록. 보잉은 노조 파업 영향 등으로 4년만에 최저 인도량. 에어버스는 전월 비 인도 흐름 소폭 개선. 보잉 사측과 노조간 임금 협상 타결되면서 신조기 제조 정상화 기대되나, 품질 관리 및 공급망 이슈로 인해 저조한 인도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 이에 따라 내년도 국내 항공기 도입 차질 계속될 것. 올해 국내 항공사들의 여객기 순증은 11월 현재까지 11대에 그침. 작년에는 23대. 현재 대한항공의 A350-2대 도입 진행 중, 티웨이 A330-300 11월 16일 인도 등 연말까지 도입은 계속되는 중

### Key Chart: 여객기 인도/도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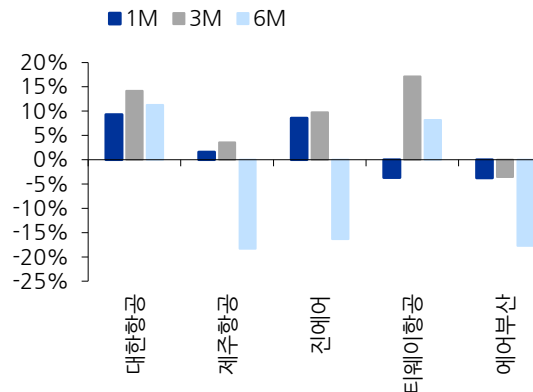


자료: 유진투자증권

## 국내 항공사 및 코스피 시총 합계 추이



## 국내 항공사 시총 변화



자료: Quantwise

## 항공 주요 뉴스(11/11~11/17)

### [여객]

- 에어프레미아 뉴욕 주 6회/방콕 주 7회로 증편
- 티웨이, 내년 청주발 발리,울란바토르 노선 신규 취항

### [기타]

-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임박, EC와 美 모두 승인 가닥
- 트럼프 당선 후, 강달러 전망 속 항공업계 울상
- 에어부산, 최대 분기 매출 기록. 공격적 증편 전략 성공
- 티웨이, 3분기 영업손실. 유럽 취항 등 투자 증가 영향
- 티웨이, 16일 A330-300 신규 도입. 좌석 수 347석
- 대한항공 내년도 신입/경력직 150명 채용 돌입
- 파라타항공 양양발 제주행 운항 재개 예정
- 코리아익스프레스에어, 회생절차 개시. 재운항 기대

### [Global]

- 보잉 10월 인도 14대. 4년만에 최저 수준
- 보잉 전직원 10%인 1.7만명 정리하고 절차 착수
- 美 스피릿 항공, 파산보호 신청 준비 중
- 에어버스, 43년까지 아태 1.95만대 항공기 필요 전망
- 日국제선 정기편, 코로나 팬데믹 이전까지 회복
- 日집에어, 이륙 후 빈자리 추가 구입 서비스 출시
- 루프트한자 실적 부진 속 관리직 20% 감축 계획
- 중국 코맥, 자체개발 여객기 130대 주문받아
- 北 고려항공 최다 운항지, 베이징서 블라디보토르로
- 베트남 항공 1,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실적 성장 지속